

1960년대 한국어 교재에서의 언어와 사회 문화 양상*

한송화

(연세대학교)

Abstract

Han, Song-Hwa. 2015. "The Language usage and Sociocultural image of Korea in 1960's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foreign learner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3(1). 201~23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sociocultural reflection and language usage in 1960's Korean textbooks for Korean learners as a foreign language. 1960's is period of starting for moder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mally. The Korean textbooks in 1960's based on audio-lingual method and focused on drills and repetitive practices. Their conversation consisted on vocabularies and grammar which are required in everyday situation. Therefore sociocultural image of those days are shown on vocabularies and conversations explicitly or implicitly. For exploring 1960's Korean image in textbooks, I composed the corpus and investigated the frequency of use. Many vocabularies correlated with situations of those days that differed from recent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many vocabularies underwent a change semantically. Lastly, Korean's perception of West and Korea, the growth of Korean cities, economic difficulties and confucian thinking were shown on conversations in 1960's Korean textbooks.

Keyword: sociocultural reflection, Korean textbook, 1960's, language usage, corpus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27). 이 논문은 2015년 제33회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서론

한국어 교육에서 교재는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언어 교육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당시의 이상적인 학습 내용과 문화를 담고 있는 실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성영(1992)에서도 교재의 세 가지 측면을 ‘교육 이념이나 목표 내용과 같은 핵심적인 개념들의 물리적인 실체’이면서, ‘교수 학습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도구’이며, ‘학습 내용을 담고 있는 표상적 실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는 목표가 되는 한국어를 교수 학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교수 학습 내용은 당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이상, 문화적 양식 등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2언어 혹은 외국어 교재는 목표 언어의 교수 학습에 필수적인 목표 언어와 문화, 사회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시기의 언어 교재를 살펴보는 것은 그 시기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편집자 혹은 집필자의 목표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시작 시점이라 할 수 있는 1960년대를 기준으로 이 시기에 발간된 교재에 나타난 언어 현상과 이를 통한 당시의 사회상과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¹⁾ 이에서 1960년대로 시기를 잡음은, 대화를 중심으로 하여 어휘와 문법 학습을 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육 과정을 토대로 한 명실공히 종합 교재로서의 한국어 교재가 처음으로 출간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미 백봉자(2001)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바탕으로 1959년에서 1979년을 잡고 있으며, 조항록(2005)에서도 교재와 교육기관 설립 등을 기준으로 1959년 한국어학당의 설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관의 설립으로 한국어 교육이 발전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를 한국어 교육의 태동기로 시대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란(2009: 16)에서도 타 언어에 대별되는 ‘한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시작

1) 이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언어 현상은 교재의 대화에 사용된 어휘와 문법 양상이다. 교재에서의 대화는 언어교재에서 어휘와 문법을 도입하고 제시하는 기능과 함께 상황과 문화를 교수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재에 드러난 사회상과 문화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재 속의 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된 시점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설립된 1959년으로 잡고 있다.²⁾ 그리고 이러한 시기 구분의 가장 기본적 기준점이 되는 것이 최초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설립과 외국인을 위한 정식 교재로서의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1~2와 《My ōngdo's Korean》 68의 출간이다.³⁾

1960년대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산업화가 추진되던 때로, 전후 사회의 원조 경제와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나 근대자본주의 질서 체계의 기본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한 때이다. 또 5·16 군사 정권의 급속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과 정책적 민족주의가 강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⁴⁾ 그리고 1960년대의 한국어 교육은 백봉자(2001)에 의하면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인과 유럽인 위주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다. 또 반문법 번역식 교수 방법으로서, 구어와 문형이 중심이 되는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로서, 한국어의 구조적 패턴과 언어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중심이 되어 교수가 이루어졌다. 즉, 상황에 따라 단계별 어휘 선택이 이루어진 대화나 텍스트가 문법적 패턴과 함께 제시된다. 청각 구두식 교수법은 언어 교수에서의 일상 문화 이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

2) 교재에 기준한 시대 구분 외에도 민현식(2005)에서는 사회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전통 교육기, 근대 교육기, 현대 교육기로 시대 구분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전통 교육기는 고대부터 1860년대까지의 시기로, 역관을 중심으로 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근대 교육기는 서구의 선교 목적이나 일제 침략의 도구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 교육기는 광복 이후 1970년대까지의 준비기와 80년대 이후의 발전기, 90년대 이후의 성장기로 구분하였다.

3) 사실 시대 구분과 관련한 문제는 그 기준의 타당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기는 한다. 즉, 시대 구분을 위해서는 다양한 내적 혹은 외적 요인들을 유기적으로 살펴 타당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시대 구분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일정 시기에 발간된 교재를 대상으로 교재에 드러난 언어를 통해 당시의 사회 문화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시대 구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피하고자 한다. 다만 고경민(2012: 27)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재는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 교육 정책 등이 융합된 하나의 실체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교재를 기본으로 시대 구분을 한 논의를 따르기로 한다.

4) 홍석률(2002)에 따르면, 1961년 5·16 쿠데타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은 '민족주의', '민족의식', '자립의식'을 강조하며 지배담론으로서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동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이전의 '국수', '국혼', '조선의 얼' 등 일제 식민지 시대에 활동했던 민족주의자들이 강조했던 반제국주의, 반예속을 추구하는 민족주의를 버리고, 경제개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근대화, 산업화 논리와 결합한 관 주도의 민족주의를 형성하였다고 하였다.

작하였던 교수법으로 이 시기 교재에서는 당시의 일상 문화를 교재에 그대로 담아내려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교육 과정 실현의 단면을 보여 주는 동시에 당시의 한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60년대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교재에 나타난 한국어의 특성과 한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등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다음과 같다⁵⁾.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1, 1960, Chang-Hai Park, Yonsei University.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2, 1965, Chang-Hai Park, Yonsei University.

《*Myŏngdo's Korean*》 68, Anthony V. Vandesande & Francis Y. T. Park, Myŏngdo Institute.

《*BEGINNING KOREAN*》, 1969, Samuel E. Martin & Yong-Sook C, Lee, Yale University Press.⁶⁾

2. 1960년대 한국어 교재의 특징

1960년대에 출간된 위의 한국어 교재는 모두 서양인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다. 먼저 《*An Intensive* …》는 그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교재가 선교사나 외교관, 주재원 등의 영어권 성인 학습자를 학습 대

5) 이 외 1960년대에 발간된 교재로는 《*Lehrbuch der koreanischen Sprache*》(1960, A. Pultr, H. Junker 編, VEB MAX niemeyer 출판사), 《*Grammaire Coréenne*》(1965, Dupont & J. Millot, 가톨릭출판사)가 있으나 이 둘은 모두 문법서이므로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6) 《*BEGINNING KOREAN*》은 두 교재와 달리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간행된 교재로서, 《*Korean Phonemics*》(1951)와 《*Korean Morphophonemics*》(1954), 《*Korean in Hurry*》(1954) 등을 집필한 Samuel E. Martin의 한국어 교재이다. 이 교재는 사실 출간은 1960년대에 되었으나, 핵심 내용이 써진 시기는 1952년이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의 기술은 주로 Yong-Sook Chang(Mrs. Yang Ha Lee)가 썼다고 한다.

상으로 목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회화와 어휘 표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모든 설명은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

- (1) This book is designed for adults who want to understand and love Korea through the Korean language. This is first of two volumes especially written for English speakers ... this book has been used to teach missionaries, diplomats, social workers and other foreigners at the Korean Language Institute ...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1 1960: v)

그리고 명도원 교재인 《Myōngdo's ...》는 명도원에서 사용하고자 만든 교재로 명도원의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교수하기 위한 교재였다. 이에 대해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2) Myōngdo's Korean'68 is based on teaching system adopted by Myōngdo Institute

...

(《Myōngdo's Korean》 68 1968: 7)

다음으로 《BEGINNING KOREAN》은 한국어로 선교를 갈 목적으로 예일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현대 한국어의 필수적인 구어를 학습하도록 고안되었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표기 수단으로 예일식 로마자를 선택하고 있는데, 한국어의 발음과 남북한의 한글 철자에 따라 로마자화 했다고 밝히고 있다.

- (3) This book aims to teach the essentials of modern spoken Korean in a systematic way. All material is given in Yale Romanization, from which it is possible to derive by rules (1) the pronunciation, (2) the standard Hankul spelling used in South Korea, and (3) the standard Hankul spelling used in North Korea.

(《BEGINNING KOREAN》 1969: v)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년대 교재들은 당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했던

한국어 학습자들이 주로 선교사, 혹은 약간의 외교관이나 주재원 업무로 한국에 와 있는 영어권의 학습자임을 말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60년대 교재의 특징으로는 이들 교재가 당시의 언어교수법인 청각구두식 교수법을 활용한 교재였다는 점이다. 고경민(2012)에서도 해방 이후부터 올림픽 이전까지의 시기를 현대 교재의 도약기로 명명하고 이 시기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의 개발에서부터 《*An Intensive* …》 교재의 출간이 있었으며, 청각구두식 교수 방법에 의한 교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형 연습과 기계적 연습, 그리고 상황 중심의 단원 구성을 이루고 있다.

먼저 《*An Intensive* …》는 회화 중심 교재로서, 도입(introduction)을 포함하여 모두 30개의 단원(unit)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단원은 대화와 발음, 문법, 문형과 복습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 Intensive* …》 1권과 2권은 교재의 단원 구성 형식이 다소 다르게 이루어져 있는데, 1권에서 대화는 각 단원의 앞에 등장하면서 학습 어휘와 문형을 도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후 발음과 문법 설명이 이어지고, 문형과 복습 부분에서 도입 대화 문장을 활용하여 여러 상황에 따라 대화 참여자 역할을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리고 2권에서는 각 단원이 회화와 교제 연습, 유형 연습, 응답 연습, 산문 연습, 단어 연습으로 구성되어 목표 문법의 교제 연습과 유형 연습, 응답 연습 등 반복적 드릴 연습이 강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My Ōngdo's* …》도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의한 교재로서, 각 단원은 기본적인 대화와 대화에 대한 설명, 문법적 패턴에 대한 설명, 드릴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서두에 일본어 교재인 Harz Jordan의 《*Beginning Japanese*》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고 하고 있다.

《*BEGINNING* …》도 역시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의한 교재로서 이는 앞의 두 교재와는 달리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출간된 교재이다. 이 교재의 각 단원은 기본 문장, 보충 어휘, 문법 패턴에 대한 설명, 패턴 연습, 대화 연습, 어휘 드릴, 듣기 이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연습은 기본 문장을 반복하여 연습하도록 고안되어 있다.⁷⁾

이렇게 세 종류의 교재는 기본적으로는 청각구두식 교수법을 따르고 있어, 교수요목의 구성도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따르고 있다. 즉, 학습자가 마주치게 될 상황을 중심으로 교수요목이 짜이고 이에 알맞은 언어 형식이 제공된다. 먼저, 《An Intensive …》는 상황을 중심으로 1권과 2권이 각각 30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y Ŏngdo's …》도 총 두 권으로 각각 16개의 단원으로 총 3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교재의 각 단원의 상황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1(1960)

인사, 학교에서, 일하는 날(1, 2), 쇼핑(1, 2), 기차역에서(1, 2), 계절(1, 2), 꽃집에서(1, 2), 식당에서(1, 2), 한국 가정 방문(1, 2), 우체국에서(1, 2), 거리에서(1, 2), 농촌에서(1, 2), 병원에서, 초대, 오후 계획, 다방에서, 공항에서, 남대문 근처에서, 교회에서, 한국 풍속

(5)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2(1965)

전화, 이사, 구두방, 건강진단, 양복점, 사진, 명절, 이발소와 미장원, 집안일, 말씨, 결론, 신문, 찬성과 거부, 희망, 기다림, 성격, 신청과 감사, 집수리, 다방, 소식, 거리에서 오 분간, 방문, 졸업, 가정, 회의, 대화, 편지, 소풍과 여행, 예술과 오락, 종교

(6) 《My Ŏngdo's Korean》 68(1968)

인사하기, 학교에서, 교통, 쇼핑(1, 2), 계절과 날씨, 시간, 방문하기, 사람 만나기, 교회에서, 거리에서, 우체국에서, 이발소에서, 식당에서(1, 2), 전화하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상황은 최근의 초중급 한국어 교재에서의 주제 및 상황과 그리 다르지는 않다. 다만, ‘농촌에서, 구두방, 양복점, 이발소’ 등의 상황은 최근 교재와는 달리 6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도입된 상황이

7) 1960년대의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언어 교재로서의 교재 분석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겠으나, 본고의 목적이 교재에 드러난 언어와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언어 교재로서의 교재적 특징만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교재에 나타난 어휘 제시와 문법 제시, 연습, 과제 등에 대한 세부적 분석은 고경민(2012)을 참조할 수 있다.

다. 또 ‘교회에서’의 단원은 서양인 학습자 대상의 교재로서, 이 교재가 사용되던 기관과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단원으로 보인다.⁸⁾

다음으로 《BEGINNING …》은 위의 두 교재와는 다소 다른 교수요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는 모두 2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의 단원이 끝나면 복습 단원이 들어가 있으며, 각 단원명은 다음과 같다.

(7) 《BEGINNING KOREAN》(1969)

saying the right thing, What's what and Who's who, Where things Are, Getting Things Done, Counting Things, Meet the Family, Daily Activity, Weather and other Conditions, I Guess you Know, A concert goer, School days, Tennis, Anyone?, Around the House, Visit from Missionary, Attending a Dinner Party, A sick Call, Playing a Picnic, Let's Make a Snow Man, Getting a Watch Repaired, Afterthought, A visit to Songdo, A job in Korea, The Henpecked Husband, A Laundry Problem,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EGINNING …》은 앞의 두 교재의 상황 중심 교수요목과는 다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 교재가 앞의 두 교재와는 달리 50년대에 집필된 교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교수요목 선정에 대해 ‘현대 한국어의 필수적인 구어를 학습하도록 고안되었다’고만 서문에 밝히고 있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교수요목을 선정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이들 단원명을 보면, ‘소유, 숫자, 사물, 가정’ 등 문법 중심 교수요목과 ‘소풍 가기, 시계 수리, 세탁 문제’ 등 상황에 의한 교수요목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도 역시 최근 한국어 교재에서의 초중급에서 목표로 하는 교수요목과 그리 다르지는 않다. 다만, ‘시계 수리하기’와 같은 단원은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선교 방문’ 역시 이 교재의 교수 학습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단원으로 볼 수 있다.

8) 강현화(2004)에서는 1986~2002년까지 출간된 주요 대학 한국어 교재의 주제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들 주제 중 ‘농촌, 구둣방, 양복점, 이발소, 교회’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1960년대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교육 과정적 특성,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한국어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즉, 이들 교재는 모두 일상적인 구어적 한국어의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대화에 드러나는 문장과 어휘는 당시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일상적인 어휘와 문장일 것이며, 따라서 최근 교재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 교재에서의 대화에 나타난 어휘와 문장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일상 문화의 특징과 이러한 일상의 변화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1960년대 교재의 언어 사용 양상

3.1. 동사와 명사의 사용 양상

명사는 이들 네 개의 교재의 대화에서 총 1,913개 어휘 유형(type)의 8,249개의 어휘(token)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명사 어휘는 일반적으로 주제나 상황에 종속적이므로, 1960년대 교재에서의 명사도 역시 상황이나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이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⁹⁾

<표 1> 1960년대 교재의 명사 분포 양상¹⁰⁾

순위	어휘	빈도	순위	어휘	빈도	순위	어휘	빈도
3	선생	139	14	오늘	64	21	책	45
7	말	102	16	말씀	62	22	한국말	42
10	집	81	17	선생님	61	23	아버지	41
11	공부	79	19	학교	46	24	저녁	39

9) 어휘 분포를 살피기 위해 본고에서는 이들 4개 교재의 대화문을 입력하여 각 어휘를 산출하였다. 각각의 말뭉치 규모는 《Beginning...》 5,311어절, 《Myongdo's ...》 1,507어절, 《Intensive... 1》 2,752어절, 《Intensive... 2》 13,621어절로 총 23,191어절이었다.

10) 빈도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주제 및 상황과 별 관련이 없는 '것, 사람, 일, 적, 수' 등은 제외하고 표에 보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과 관련한 ‘한국말, 학교, 공부, 책’ 등의 어휘와 ‘선생, 선생님, 아버지’ 등의 각 대화 상황에서의 교재 내 대화 속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어휘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머니(38), 친구(34), 사장(33)’ 등 교재 내 대화 속 인물들과 관련된 어휘나 ‘오늘, 저녁, 감사(35), 다음(34), 안녕(33), 오후(27), 시간(27)’ 등 인사나 소개, 방문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어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¹¹⁾. 이는 2000년대 교재에서의 ‘친구(5,572)›집(2,863)›시간(2,700)›오늘(2,263)›지금(2,068)›공부(2,004)›음식(1,978)›학교(1,852)›영화(1,636)›여행(1,479)’의 빈도와 비교할 때, 2000년대 교재에서는 ‘친구’ 외에도 ‘영화나 음식, 여행’ 등 취미와 관련한 대화가 많았던 반면, 60년대 교재에서는 친구나 가족, 회사 관계에서의 대화가 많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¹²⁾

다음으로 동사는 440개 유형(type)의 4,893개 어휘(token)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초급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동사들이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최근(2000년대) 교재에서도 ‘하다(23,934)›가다(10,421)›보다(10,927)›되다(5,624)›오다(5,159)›주다(4,474)›먹다(4,104)›알다(2,172)›사다(2,152)›만나다(2,144)›좋아하다(1,9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60년대 교재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11) 다만 《Beginning...》에서는 ‘감사(하다)’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를 대신하여 ‘고맙다’만이 나타나고 있어, 1950년대 집필된 교재와 1960년대 교재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당시의 어휘 수집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다’와 ‘고맙다’의 사용상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본고에서는 1960년대 교재의 어휘 분포를 최근의 교재와 비교하기 위해 강현화(2012)에서 구축한 한국어 교재 말뭉치에서의 어휘 분포를 활용하였다. 강현화(2012)에서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회화용 기관 교재를 말뭉치화하여 이를 빈도로 제시하였다. 이하 2000년대 교재에서의 어휘 사용 빈도는 모두 강현화(2012)에서의 초·중급 빈도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표 2〉 1960년대 교재의 동사 분포 양상

순위	어휘	품사	빈도	순위	어휘	품사	빈도
1	하다	동사	550	6	보다	보조	163
2	가다	동사	218	7	않다	보조	161
3	하다	보조	211	8	되다	동사	150
4	주다	보조	182	9	보다	동사	101
5	오다	동사	174	10	가다	보조	9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동사 ‘하다, 되다, 가다, 오다, 보다, 알다 (84), 쓰다(77), 모르다(53), 만나다(52), 사다(44), 먹다(42), 주다(41)’ 등의 동사와 보조동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교재에 나타난 명사 및 동사 어휘를 살펴보면, 상항이나 주제와 관련한 어휘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중 최근 교재에서는 선택되지 않는 어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휘들은 주로 1960년대 교재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교회, 다방, 이발소, 구뭇방, 양복점, 농촌’ 등의 상황과 관련한 어휘들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¹³⁾

- (8) 다방, 전언판, 레지
- (9) 춘추복, 옷감, 옷저고리, 품, 가봉, 선금, (옷을) 짓다, 단추, 달다
- (10) 이발사, 뒷머리, 길다, 깎다, 면도, 귀밑, 단골, 머리, 감다, 머릿털, 머리카, 머릿기름, 빗기다, 단골, 자라다, 이발, 시원하다, 수건, 바르다
- (11) 농촌, 소나무, 감나무, 포푸라, 벼, 논, 밭, 논둑길, 산비탈, 풍년, 농사, 보통작, 언덕, 염소, 농사 짓다, 짚, 잇다
- (12) 교회, 주일, 주일 학교, 장로교, 재적 교인, 예배, 후보, 기도, 장로, 설교, 찬송, 목사님, 성경 봉독, 데살로니가 전서, 축도, 헌금, 전도사, 주님, 찬양, 교인, 성가대, 영혼, 대원, 선교사; 성당, 성스럽다, 엄숙하다, 성모, 예법, 수녀님,

13) 신현숙(2004)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1960년대 교재의 어휘를 의미로 기준으로 9개의 의미 범주로 분류하여 각 의미 범주에 속하는 어휘를 소개하였으며, 이들 어휘가 1960년대라는 사회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 이들 어휘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사용되지 않거나 현재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어휘들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순결, 영세, 교리, 천주교, 천주님, 미사, 신부님, 목주 신공, 미사경본, 강론;
석가모니, 탄생일, 부처, 중, 신도, 연등, 염불, 목탁, 인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방이나 양복점, 이발소, 농촌 상황과 관련한 어휘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1960년대의 일상적인 사회 문화를 보여 준다. 그리고 (12)와 같이 1960년대 교재는 종교, 특히 기독교와 관련한 어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 대한 어휘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기독교 관련 어휘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당시 교재의 학습 대상과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

또 ‘교통, 우체국, 전화’ 등 2000년대 교재에서도 선택되는 주제나 상황의 경우에도 1960년대와 최근의 일상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이 달라짐으로 인해 교재에 드러나는 어휘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 (13) 가. 기차, 기차표, 이등, 우등, 대합실, 플랫폼, 질 부치다, 역, 타다, 차간, 닿다, 가다, 편리하다, 질 찾다; 차, 자동차, 버스, 택시, 운전수, 완행, 타다, 교통 순경, 합승 택시; 버스, 정류장, 건널길, 건너다, 내리다, 로터리, 네거리, 삼거리 (60년대 교재의 어휘)
- 나. 길, 묻다, 찾다, 아파트, 출구, 번, 건너편, 횡단보도, 호선, 교통, 복잡하다, 지하철, 택시, 버스, 정류장, 역, 공항, 터미널, 타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세우다, 갈아타다, 고속버스, 시내버스, 교통카드, 노약자석, 노선도, 승강장, 사거리¹⁴⁾ (2000년대 교재의 어휘 예시)
- (14) 가. 우체국, 전보, 치다, 폴그릇, 편지, 소포, 저울, 그람, 국제 우편, 부치다, 우표, 항공편, 선편, 지급 전보 (60년대 교재의 어휘)
- 나. 우체국, 소포, 저울, 물건, 이상, 생기다, 보험에 들다, 보험료, 항공편, 택배, 특급우편, 배편, 국제특급, 등기¹⁵⁾ (2000년대 교재의 어휘 예시)
- (15) 가. 대 주다, 걸다, 전화, 용무, 교환수, 교환, 대화인 지정, 보통, 지급, 대화

14) 이는 《연세한국어》 1(2007: 249~222), 《연세한국어》 2(2007: 170~195)에서의 교통 관련 단원에 나타난 어휘이다.

15) 이는 《연세한국어》 1(2007: 230~231)에서의 우체국 관련 단원에 나타난 어휘이다.

지정인

(60년대 교재의 어휘)

- ㄴ. 전화번호, 국제 전화, 휴대 전화, 걸다, 받다, 전화벨, 잘못 걸다, 누르다, 신호, 음성메시지, 문자메시지, 통화 중, 끊다, 바꿔 주다¹⁶⁾

(2000년대 교재의 어휘 예시)

위 (13ㄴ)에서의 최근 교재에서와 달리 (13ㄱ)의 1960년대 교재의 교통 관련 단원에서는 ‘합승 택시, 완행 기차, 이등 차표’ 등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기차를 탈 때 짐을 부치고 짐을 찾는 곳이 있었으며, ‘로터리, 네거리, 건널길’ 등 교통 문화와 관련한 어휘가 지금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 (14ㄴ)의 2000년대의 우체국과 관련한 어휘와 달리 (14ㄱ)의 1960년대 교재에서는 ‘전보를 치다, 지금 전보’ 등 현재에는 없는 우체국 문화가 어휘로 나타나고 있으며, (15ㄱ)에서도 ‘교환수, 교환, 대화인 지정’ 등 (15ㄴ)의 최근 교재에서의 전화 대화와는 다른 어휘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어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들 어휘를 통해 당시의 사회 문화를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또 언어적으로 1960년대 어휘와 지금의 어휘를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다. 즉 지금은 사용되지 않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1960년대에는 자주 사용되었던 어휘나, 동일한 어휘이나 지금과 1960년대 자료에서의 어휘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는 어휘가 나타난다.¹⁷⁾

- (16) ㄱ. 이 모자 얼마입니까? - 예, 팔천 오 백 환입니다. (Intensive 2)
- ㄴ. 신: 아, 그 박 양 말씀인가요? (Intensive 2)
- ㄷ. 영수: 어디를 가시는 길인데 이 쪽으로 가십니까?
- 미혜: 고등학교 때 동무의 결혼식에 참례하려고요. (Intensive 2)

16) 이는 《연세한국어》 1(2007: 287~264)에서의 전화 관련 단원에 나타난 어휘이다.

17) 본고에서의 1960년대 교재에서의 대화문만으로는 이와 같은 어휘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피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어휘의 변화 양상은 좀 더 많은 언어 자료를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ㄹ. 한 주간은 몇 일이에요?

- 한 주간은 이레예요. (Beginning)

ㅁ. 학교에 가기 전에 더운 조반을 먹어요. (Beginning)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 명사 ‘환, 전’ 등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단위로서 1960년대 교재에서만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어휘이다. 또 호칭으로 사용되는 ‘양, 미스, 미세스’ 등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호칭이며, (16ㄷ~ㄱ)에서의 ‘동무, 참례, 이레, 조반’ 등은 지금은 ‘친구, 참석, 칠일, 아침’ 등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휘적 변화를 보이는 1960년대 교재의 어휘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¹⁸⁾

- (17) 양, 미스, 미세스, 양반, 형, 전, 환, 소제, 계원; 참례(참석), 색시(여자), 동무(친구), 경대(화장대), 바른편(오른쪽), 산보(산책), 정구(테니스), 주일(주), 칠(계절), 공리(생각), 틈(시간), 참말(정말), 틀다(켜다), 낙제하다(떨어지다), 순경(경찰), 내(다음), 형편(사정), 한식부(한식당), 왜식부(일식당), 양탄자(카펫), 화병(꽃병), 공일(공휴일), 림펜(놈팽이), ...¹⁹⁾

이와 같이 1960년대 교재에는 현재의 교재와는 다른 어휘들이 분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60년대 교재는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18) 이에서 보인 어휘 외에도 ‘강습소, 음악쇼, 유성기, 침지, 간호부, 우편국, 원유회, 삼지창, 회중시계, 소세, 부인회, 독습, 탁아소, 양요리, 댄스홀, 음악홀, 전차, 공부꾼, 예수쟁이’ 등 현재의 어휘와는 다른 어휘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Beginning...》에서만 나타난 어휘이다. 그런데 이 교재는 미국에서 출간되고 실제 집필은 195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 어휘이거나 잘못된 번역에 기인한 어휘적 차이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19) 이 외, 1960년대 교재에는 접사 ‘님’의 결합이 지금보다는 활발하지 않아, ‘선생님, 목사님, 사장님’보다는 ‘선생, 목사, 사장’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2000년대 교재에서의 ‘선생:선생님’ 빈도는 ‘49:1773’인 반면, 1960년대 교재에서는 ‘선생:선생님’의 빈도가 ‘205:51’이었다. 그리고 이 둘이 그리 크게 구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ㄱ. 누구한테 배워요? - 김 선생한테 배워요. 《Beginning》

ㄴ. 정 선생, 국수는 언제 먹게 됩니까? 《Myongdo》

ㄷ. 박 선생님은 여기 앉으시고 한 선생은 맞은편에 앉으시죠. 《Beginning》

하였으므로 교재에서의 고유명사 분포를 보면, ‘한국(72), 중국(5), 남한, 북한, 일본’이 등장하기는 하나, ‘미국(25), 파리(파리)(4), 뉴욕(2), 독일, 불란서,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 서양권 국가명이나 도시 이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최근(2000년대) 교재에 나타나는 ‘한국(4,233), 일본(421), 미국(347), 중국(371), 프랑스(95), 러시아(88), 호주(85), 베트남(83), 태국(78), 독일(75), 유럽(68), 영국(63), 이탈리아(60), 캐나다(61), 몽골(33), 인도(31)’ 등 한국어 학습자의 국적이 다양해짐을 반영하여 다양한 국가 명을 교재에 반영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서양권 편중성은 교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는데, 2000년대 교재에서는 ‘빌리(1,311), 나오키(1,169), 앤디(1,203), 제임스(440), 모하메드(365), 요코(279), 나타샤(238), 호영(147), 샤오밍(112)’ 등 한국어 학습자의 국적이 다양해짐을 반영하여 다양한 국적의 인물이 교재에 나타나고 있으나, 1960년대 교재는 당시 한국어 학습자가 영어권 선교사 중심이었으므로, ‘존슨(194), 스미스(60), 로우즈(54), 클락크(30), 테일러(23)’ 등 서양 이름이 주로 쓰이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1960년대 교재의 명사와 동사를 살핀 결과, 언어적으로는 현재의 어휘와 비교했을 때 지시 대상이 사라짐으로써 어휘가 사라지거나 어휘의 의미가 다소 변화하거나 어휘의 사용 빈도가 변화한 예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지금과는 다른 당시의 일상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서양권 중심으로 고유명사가 분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2. 형용사의 사용 양상

1960년대 교재의 대화문에서는 201개 유형(type)의 1,969개의 형용사 어휘(token)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2000년대)의 교재와 공통적으로 고빈도로 나타나는 형용사는 ‘있다(362), 그렇다(258), 좋다(227), 없다(156), 어떻다(106), 같다(97), 많다(74)’ 등이었다.²⁰⁾ 이들 어휘를 제외하고 60년대 교재 특징적으로 고빈도로 나타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²¹⁾

〈표 3〉 1960년대 교재의 형용사 분포 양상

순위	어휘	빈도	순위	어휘	빈도	순위	어휘	빈도
8	괜찮다	39	12	바쁘다	23	16	늦다	11
9	고맙다	38	13	어렵다	22	17	작다	11
10	이렇다	36	14	다르다	19	18	짧다	10
11	크다	25	15	재미있다	14	19	쉽다	10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쁘다, 어렵다, 힘들다, 늦다’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형용사의 언어 관계를 보면, ‘생활, 한국어, 공부, 숙제, 일, 경제’ 등과 언어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생활이나 한국어, 경제가 어렵거나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8) 가. 공부만 하기가 힘들기도 해요. (Beginning)
 나. 요새는 시험 때가 돼서 (우리는) 분주 (하기)도 하고 피곤 (하기)도 해요. (Beginning)
 다. 요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Myöngdo)
 르. 특히 한국말은 배우시기가 어려우시죠? (Intensive 2)

다만 최근의 2000년대 교재에서는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춥다, 덥다, 비싸다, 나쁘다, 피곤하다’ 등의 부정적인 형용사의 사용이 많은 반면, 60년대 교재에서는 ‘짧다, 쉽다, 예쁘다, 따뜻하다, 맛있다, 부지런하다, 부드럽다’ 등 긍정적인 어휘의 사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언어적으로는 형용사의 경우에도 역시 앞서의 명사나 동사와 같이 지금과는 사용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20) 2000년대 교재에서의 이들 형용사의 빈도는 각각 ‘있다(15,963), 없다(3,961), 좋다(5,324), 어떻다(3,866), 같다(3,192), 많다(2,927), 싫다(2,894), 그렇다(2,469), 크다(1,314), 재미있다(999)’이었다.
 21) 2000년대 교재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빈도 형용사를 제외하고, ‘어렵다(937), 힘들다(931), 아프다(931), 바쁘다(809), 늦다(742), 맛있다(713)’ 등이 고빈도로 나타났다.

- (19) ㄱ. 예, 김 학수의 책이 있으나, 표지가 좀 든든하지 못합니다. (Intensive 1)
 ㄴ. 저 분은 자기가 하는 일에 박력이 있고, 또 착실히 하지요. (Intensive 1)
 ㄷ. 학교에 가기 전에 더운 조반을 먹어요. (Beginning)

(19)에서와 같이 ‘든든하다, 박력 있다. 덩다’ 등의 형용사는 언어 관계가 지금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1ㄷ)의 ‘덩다’는 ‘더운 음식, 더운 차’ 등 음식과 관련한 명사와 언어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신통하다, (병이) 중하다, 한량없다’ 등 2000년대 교재의 초중급 어휘에는 나타나지 않는 형용사도 사용되고 있었다.²²⁾

3.3. 부사와 감탄사의 사용 양상

1960년대 한국어 교재에서는 275개 유형(type)의 2,366개 부사 어휘(token)가 사용되고 있어, 최근의 2000년대 초급 교재에서의 135개 유형의 부사 어휘에 비해 다양한 부사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사에는 ‘이리, 속히, 본시, 십분, 썩, 암만, 쉬이, 가히, 누차, 되려, 어지간히, 정, 천연’ 등 예스러운 부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60년대 교재에 사용된 부사의 빈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1960년대 교재의 부사 분포 양상

순위	어휘	빈도	순위	어휘	빈도	순위	어휘	빈도
1	좀	173	6	많이	66	15	꽤	26
2	잘	171	7	더	51	16	너무	25
3	참	89	9	같이	42	17	아주	24
5	다	72	13	어서	28	18	늘	2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사의 경우 부정부사나 의문부사 ‘안(73), 못(33),

22) 이러한 언어적 변화 양상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시대별 말뭉치를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휘의 변화 양상은 후고를 기약한다.

왜(33)’를 제외하면, ‘좀, 잘, 참, 많이, 다, 꽤’ 등이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서 보면, 정도부사인 ‘아주, 너무’보다는 ‘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참’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가. 이발사: 뒷머리가 그 동안 꽤 길었군요. (Intensive 2)

나. 오늘 참 피곤해요. (Myöngdo)

반면, 2000년대 교재는 ‘잘(3503), 많이(3334), 좀(2483), 너무(679), 아주(1136)’의 빈도가 나타나, 정도부사 중 ‘너무’와 ‘아주’의 빈도가 높았으며, 60년대 교재에서 많이 사용되던 ‘참(419),²³⁾ 꽤(0)’은 빈도가 낮았다. 그리고 빈도부사로는 ‘늘(24), 자주(6), 가끔(4), 종종(3), 때때로(3), 밤낮(2), 매일(2), 항상(1)’ 등이 사용되어 ‘늘, 자주, 가끔’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교재에서는 ‘자주(978), 항상(315), 가끔(176), 늘(94)’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늘’보다는 ‘항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접속부사의 경우, 60년대 교재에서는 ‘그런데(66), 그리고(65), 그러면(58), 또(46), 그렇지만(31), 그래서(24), 그러나(16), 그래도(14), 하지만(9)’의 순으로 사용되었음에 반해, 최근의 2000년대 교재에서는 ‘그리고(1525), 그런데(1342), 그래서(1286), 그럼(1204), 또(577), 하지만(501), 그러면(293), 그러나(149), 그러니까(117), 또한(116), 근데(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60년대 교재에서는 2000년대 교재에 비해 ‘하지만, 그럼, 근데’ 등 좀 더 구어적인 접속부사의 사용이 많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감탄사의 경우, 최근의 2000년대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네(2109), 아니/아니요(637), 아(172), 그래(151), 글썸/글썸요(98), 그럼/그럼요(49), 저(49), 음(37)’의 순으로 응답의 ‘네, 아니/아니요’를 제외하면, 감정을 나타내는 ‘아’나 담화표지로서의 ‘글썸, 그럼, 저, 음’ 등이 많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1960년대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3) 강현화(2012)에서의 빈도는 감탄사인 ‘참’도 빈도 수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사로서의 ‘참’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표 5〉 1960년대 교재의 감탄사 분포 양상

순위	어휘	빈도	순위	어휘	빈도	순위	어휘	빈도
1	네/예	317	6	자	27	11	여보	13
2	아	86	7	글썸/ 글썸요	24	12	천만에	13
3	그럼/ 그럼요	46	8	참	20	13	응	8
4	그래	30	9	뭐	19	14	여보세요	6
5	아니요	30	10	아니	14	15	오	4

위에서 보면, ‘네, 아니요, 아, 그럼’ 등 응답이나 감정 표현, 혹은 담화 표지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감탄사의 빈도는 최근 교재와 비슷하게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60년대 교재에서는 최근의 교재에 비해 아래 (21), (22)에서와 같이 ‘자, 여보, 참’ 등이 사용된 대화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60년대 교재에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많이 나타나고 대화 참여자의 연령이 다소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암, 오냐, 옹지’ 등의 응답을 표현하는 감탄사가 나타나고 있음으로도 알 수 있다.

- (21) ㄱ. 여보, 어젠가 빠리에 가 있는 동창생 얘기를 한 적이 있지? (Intensive 2)
 ㄴ. 여보, 시계 잘 해 왔어요? (beginning)
- (22) ㄱ. 참,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라더니, 정말 많기도 합니다. (Intensive 2)
 ㄴ. 자, 여러분들, 저쪽에 앉을 만한 넓은 자리가 있으니, 이리 오십시오. (Intensive 2)

그리고 60년대 교재에서는 ‘아따, 제길, 허, 치, 흥’ 등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60년대 교재에서는 최근의 교재에서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간투사 사용에 다소 너그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3.4. 어미의 사용 양상

한국어 교재에서의 어미의 사용은 교재의 등급과 교재의 목표 문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므로, 문법의 등급화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최근 교재에서의 어미 분포와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고는 60년대 한국어 교재의 문법의 등급화를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서는 60년대 한국어 교재에서의 어미 사용의 특징만을 간단히 살필 것이다.²⁴⁾ 우선, 60년대 한국어 교재에서의 고빈도 어미는 다음과 같다.

〈표 6〉 1960년대 교재의 어미의 분포 양상

형태	유형	Int. 1	Int. 2	Mong	Beg.	빈도
-어요/아요/예요	종결어미	-	280	235	515	1030
-시/으시-	선어말어미	142	520	120	172	954
-습니다/읍니다/습니다	종결어미	375	421	18	117	931
-았/었-	선어말어미	66	397	54	236	753
-아/어	연결어미	47	441	36	90	614
-ㄴ/은	관형형전성어미	55	362	24	113	554
-고	연결어미	35	234	21	109	399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년대 교재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종결어미는 ‘-습니다, -어요’이며, 연결어미로는 ‘-어/아, -고’, 그리고 주체존대의 ‘-시-’와 과거시제 ‘-았/었-’이 고빈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종결형의 사용에 있어서 각 교재 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즉, 60년대 교재에서 《Beginning …》과 《My Öngdo …》에서는 대화의 종결형을 비격식체인 ‘-아요/어요’를 기본으로 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Intensive …》 1~2에서는 격식체인 ‘-습니다/읍니다’를 기본으로 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각 기관 교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자의 두 교재는 실제 구어 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4) 어미의 철자법적 차이는 이에서는 무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60년대 교재에서는 나이 든 중년 남성의 대화와 부부간의 대화가 많아, 아래 (23)에서와 같이 ‘-소, -오, -은가, -나, -게, -게나, -세, -르세’ 등 예사높임이나 예사낮춤의 어미 사용이 많이 나타난다.²⁵⁾

- (23) 가. 김: 천만에. 나아말로 다 늙었지. 이것 봐, 대머리가 되어 가거든.
 오: 앗따 이 사람, 머리가 조금 벗어졌다고 곧 늙은이가 되는 건가? 참, 정진섭 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나? (Intensive 2)
 나. 존슨: 아따 그만 두구려. 집안 망신은 도말야 시킬 참인가.
 존슨 부인: 천만에요. 그건 내게도 관계돼 있는 걸요. (Intensive 2)
 다. 로우즈: 아, 무슨 일이라도 있었우? 조금 전에 김 선생이 당신을 찾아 종로로 나갔는데 ...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김 선생이 안 가도 되었을 것을 ...
 로우즈 부인: 참말 미안하게 되었어요.
 로우즈: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우?
 로우즈 부인: 종로로 나오려니까, 학생들이 시가 행진을 하잖겠어요?
 (Intensive 2)

다음으로 60년대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오-, -옵-’ 등의 겸양의 선어말어미의 사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 (24) 가. 부모님 모시고 잘 있사오며, 집안이 다 무고하옵니다.
 나. 꼭 오셔서 어린 것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시옵기 바랍니다. (Intensive 2)

위에서와 같은 겸양의 선어말 어미의 사용은 주로 《Intensive ... 2》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의 편지 쓰는 예법을 설명하는 단원에 사용되며, 이 단원에서 편지 예문에서 많은 용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겸양의 ‘-사오-,

25) 전체 종결형인 188종의 종결어미 중 예사높임이나 예사낮춤의 종결어미로 12종이 나타났으며, 빈도로는 2.8% 정도로 나타났다.

-옵' 등은 이미 60년대에도 문어에서만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5. 상용구의 사용 양상

60년대 교재에서는 각 권의 첫 단원이나 각 단원의 대화문에서 인사나 감사 표현, 사과 표현과 이에 대한 대응 표현으로서 상용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용구는 지금과 유사하기도 하고 어떠한 상용구는 현재와는 다르게 소개되기도 한다.

- (25) 가. 김선생.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나. 잘 주무셨습니까? - 네. 잘 잤습니다. (Beginning)
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 네. 먹었습니다. (Beginning)
- (26) 가. 이 즈음 어떻게 지나십니까? - 그저 그렇습니다. (Intensive 1)
나. 안녕하십니까? - 예, 잘 지냅니다. 선생은 재미가 어떠하십니까? (Intensive 1)
다. 요즈음 재미가 어떠세요? - 그저 그렇지요, 뭐. (Myōngdo)
르. 고맙습니다./실례합니다. - 천만에 말씀입니다. (Intensive 1)
미. 수고를 많이 끼쳤습니다. (Beginning)

위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적인 안부 인사의 경우 지금과 차이가 없으나, (25나, 다)과 같은 밤새 잘 주무셨는지, 식사를 하셨는지와 같은 인사 상용구를 제시하였음이 현재의 교재와는 다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그리고 (26)에서와 같은 상용구는 최근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상용구로 2000년대 교재와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따라서 인사나 감사 혹은 사과, 그리고 이에 대한 응대 표현의 상용구는 60년대와 지금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예를 들어 《연세한국어》 1에서의 인사와 관련한 상용구를 보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뵈겠습니다' 등이 제시되고 있다.

4. 1960년대 교재에서의 대화에 나타난 사회 문화적 양상

앞에서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는 이전의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달리 일상 생활과 관련된 일상적 문화 요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한 바 있다. 즉, 일상 문화와 관련한 요소의 교수가 언어 능력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았다.²⁷⁾ 즉,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근거한 60년대 교재에서는 목표 언어인 한국어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일상 문화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문화를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대화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대화 속에서 당시 젊은이들의 의복 문화나 문화생활, 그리고 당시 여성들의 결혼관 등을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7) 재단사: 예, 젊은이들 같으면, 좀 뽀뽀한 것이 좋아 보이지만, …(Intensive 2)

(28) 진호: 며칠 전에 음악 감상실에 친구와 잠깐 들린 일이 있었는데, 십대들의 음악 감상 태도는 참 놀랍더군요.

윤자: 전 음악이면, 다 좋아 해요. 제즈도 어떤 때는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고전 음악만은 못하지만요. (Intensive 2)

(29) 이영자: 김 선생께서는 자유 결혼과 중매 결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낡은 생각 같지만, 역시 중매 결혼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국진: 그런데, 왜 이 선생은 현대 여성답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Intensive 2)

위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젊은이들은 좀 끼는 옷을 좋아했다든지, (28)과 같이 당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게는 다소 놀랍거나 생소했던 재즈를 들었다든지, (29)와 같이 당시 현대적인 여성들은 연애결혼에 대한 선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하는 것들을 대화 속에서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60년대 교재에 드러난 주제와 상황의 각 단원에서의 어휘뿐 아니라 대화

27) 김해영(2008: 25)에서도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는 일상 문화인 Small C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으로 오면서, 언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사회 문화적 맥락 이해가 중요함을 인식하여, 언어 교수에서의 문화 요소들이 강조되었다고 하고 있다.

속에는 당시 한국의 일상 문화가 드러난다. 앞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교재에서의 대화는 어휘나 문법을 도입하고 상황이나 주제에 적절한 구어를 제시하는 기능도 하지만 이러한 언어적 기능 외에도 목표 언어의 다양한 문화를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대화에는 목표 언어의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 제시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60년대 교재에서의 대화는 당시의 사회 문화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와 같이 대화 속에서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당시 사회 문화 양상 중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서양과 한국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당시 문화 상징으로서 교재에 드러내고 있는 한국의 문화, 그리고 교재에 드러난 당시의 가족 문화와 유희적인 사고 양식,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²⁸⁾

4.1. 서양과 한국에 대한 인식

앞서 60년대 교재에서는 주로 서양의 국가명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서양 국가에 대해 대화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어, 당시의 서양 국가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 (30) ㄱ. 그 부속품을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어서 미국으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Beginning)
- ㄴ. 부인: 미국 간 아드님에게서 종종 소식이 있습니까? (Intensive 2)

28) 이러한 사회 문화적 특징 외에도 당시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 문화적 양태가 대화 속에 명시적, 암시적으로 드러났다.

- 한국은 다방 문화가 발달하였다.
- 당시 한국 집에는 응접실 같은 것이 없어서, 손님을 집에서 대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로 다방에서 손님 접대가 이루어졌다.
- 한국 미장원이나 병원은 예약을 하지 않았다.
- 호텔에서는 종업원이나 안내원에게 팁을 주었다.
-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다.
- 당시에는 취미 운동으로 정구나 야구, 농구를 주로 했다.
- 당시 한국의 일반적인 가옥은 안방, 건넌방, 마루, 그리고 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랑방, 부엌의 구조를 하고 있었다.
- 당시 한국 농촌은 초가집이 일반적이었다.

- 다. 지금은 미술 연구 차 프랑스 빠리에 가 있대요. (Intensive 2)
 르. 네 미국 유성기예요. 참 좋지요? (Beginning)
 (31) 가. 선생 부인은 중국 대사관 서기관의 부인으로 한 달 전에 한국으로 왔어
 요. (Beginning)
 나. 그 뿐이 아닙니다. 이문이 오백 년을 서 있는 동안, 일본과 중국 병정들이
 쳐들어 왔을 때에도 두 번이나 위태로웠지요. (Intensive 1)
 다. 아, 이 정 선생을 소개합니다. 필리핀에 회사 일로 가십니다. (Intensive 1)
 르. 처음 뵙습니다. 동경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Intensive 1)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년대 교재에서 ‘미국, 프랑스’ 등 서양권 국가
 는 선진 문물의 상징으로 경제적, 학문적으로 발달한 국가로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국가는 (31)에서처럼 인물이나 문화 소개, 혹은 업무 출장과
 관련하여 약간 등장하고 있다. 또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서양인은 명랑하고
 쾌활하며 사교적인 성격임에 반해 한국인은 체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소개
 하고 있다.

- (32) 민: 아니요, 임 선생과도 돌아오는 길에 얘기를 했읍니다만, 서양 사람들의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은 참 부러웠습니다.
 존슨: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이 좀 잘 어울리는 편이지요. 그래
 서 사귀기도 쉽지요.
 민: 우리들은 보통 체면을 지키다 보면, 재미있게 지낼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존슨: 그렇지만, 한국도 앞으로 한 오년 내지 십년만 있으면, 그런 점도 많이
 달라질 걸요. (Intensive 2)

그리고 외국인에게 소개할 만한 한국의 특징으로는 아래와 같이 ‘산이
 많다’거나 ‘계절에 따라 다른 종류의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곳으로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 (33) 참,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라더니, 정말 많기도 합니다. (Intensive 2)

이와 같이 당시 교재에서는 ‘서양은 선진 문물의 상징으로 경제적 학문적으로 발달한 국가이며 명랑하고 쾌활하고 사교적인 사람들의 상징으로, ‘한국’은 다소 체면을 중시하고,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로서 문화나 정치 사회적 인 특정보다는 ‘한국의 자연’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교재에는 위 (32)에서와 같이 ‘체면 중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나 ‘한국의 문화가 이제는 정적인 데에만 머물지 않고 좀 더 진취적이고 활발한 데까지 가고 있다’는 등 한국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었다.

4.2. 지명의 분포와 도시의 발달상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각 교재들에서는 목표 언어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교재에 포함시키며, 따라서 목표 언어 사회를 상징하는 어휘를 교재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목표 언어의 사회 문화 경제적 상징으로서의 지명이다. 예를 들면, 2000년대 교재에서는 ‘서울(1348), 제주도(661), 부산(363), 경주(224)’ 등의 순으로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도와 한국 최대의 관광지, 수도를 제외한 경제적 중심 도시, 문화적 상징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이들 지명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의 교재에서는 이들 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인천(184), 전주(92), 춘천(89), 강화도(56), 경기도(54)’ 등 다양한 지역을 교재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각 도시의 특성을 교재에 드러내면서 교재에서 이들 도시를 학습자에게 문화적으로 소개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60년대 한국어 교재에서는 ‘서울(17), 부산(5)’만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의 지역이 망라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2000년대 교재에서 강조되는 지역인 ‘제주도’가 60년대 교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상철(20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주도’가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농업의 산업화와 관광으로 이전의 변방적 지위에서 주변적 지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60년대에는 한국의 상징적 지명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60년대 교재에서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볼 만한 곳들이 많다’고 한

국을 소개하면서도 ‘설악산, 금강산’ 만이 교재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2000년대 교재에서의 ‘설악산(184), 한라산(65), 민속촌(41), 동해(38)’ 등 다양한 관광지가 소개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34) 진수: 더구나 여기 강원도 지방은 평야가 없고, 산과 산의 연속인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부 지방은 많이 발전하지 못한답니다.

스미스: 그래도, 금강산이나 설악산 같은 경치 좋은 산이 있어서, 정부에서 머리를 쓰면 관광을 텐데요.

진수: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가는 설악산에도 관광 호텔을 세우고, 길을 닦고 있다니까, 머지 않아 변화하게 될 겁니다. (Intensive 2)

위 (34)에서와 같이 60년대 교재에서는 외국인에게 소개할 만한 관광지로서, ‘설악산, 금강산’이 전부였으며, 그나마 ‘설악산’은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화에 나타나는 서울의 명소나 지역에 있어서도 2000년대 교재에서는 ‘동대문(196), 신촌(194), 인사동(161), 경복궁(138), 명동(131), 시청(99), 한강(90), 종로(87), 서울역(82), 남대문(71), 남산(70)’ 등의 다양한 지명이 나타나고 있으나, 60년대 교재에서는 ‘종로(9), 광화문(5), 우이동(5), 남대문(3), 중앙청(3), 시청(3), 서울역(2), 을지로(2)’ 등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교재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지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대화를 살펴보면, 당시 서울에서 이들 지역들의 특성을 알 수 있다.

(35) ㄱ. 예, (시가행렬이) 지금 광화문을 지나, 중앙청 쪽으로 가던데요. (Intensive 2)

ㄴ. 남대문을 지나면, 길 앞에 서울역이 보입니다. (Intensive 1)

ㄷ. 우이동이 좀 멀어도 거기 벚꽃이 유명하니깐 사람들이 많이 갈 거예요. (Beginning)

ㄹ. 경호 : 등산이 어떨까요? 등산을 하자면, 도봉산이나 백운대 같은 곳이 좋을 텐데요. (Intensive 2)

위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교재를 보면, 서울의 변화가는 ‘종로,

www.kci.go.kr

광화문, 시청, 중앙청, 서울역, 을지로’ 등이었으며, ‘우이동, 창경원, 덕수궁, 도봉산, 백운대’ 등은 당시 서울에서 여가나 관광을 위한 상징적인 곳으로 교재에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지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60년대의 도시나 한국의 경제, 문화,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지역이 지금과 같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했고, 발달 중이었음이 교재에 드러나고 있다.

4.3. 한국의 문화 소개와 문화 상징

한국어 교재에는 목표 언어의 대표적인 문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목표 언어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상징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나 옛 건물, 문화재, 명절이나 관습 등 유형 혹은 무형의 문화들이 있다.

먼저 한국의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음식과 관련하여, 60년대 교재에서의 음식 고유명사 분포를 살펴보면, ‘김치(8), 냉면(5), 불고기(3), 갈비찜(2), 떡국, 영계백숙, 잡채, 비빔밥’ 등이 나타나고 있다.³⁰⁾ 그리고 이들은 대화문 속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36) 가. 김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암만 매워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Beginning)

나. 한국 음식은 무엇이 유명하지요? - 불고기가 유명해요. (Myöngdo)

29) 실제로 1964년 4월 13일자 경향신문 기사 <“화사한 인사”: 벚꽃 활짝>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 벚꽃은 ... 4월 들어 두 번째 일요일 창경원에 몰려든 상춘객들을 즐겁게 했다 ... 이날 덕수궁에는 1만7천명, 우이동에는 약3만명, 도봉산에는 4천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초봄의 휴일을 마음껏 즐겼다”고 하고 있다. 이를 보면, 당시 유흥지로 ‘창경원, 덕수궁, 우이동, 도봉산’ 등이 대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0) 2000년대 교재에서는 ‘김치(379), 불고기(314), 비빔밥(318), 김치찌개(163), 갈비(찜/탕)(156), 삼계탕(140), 김밥(140), 냉면(121), 떡국(111), 된장찌개(84), 떡볶이(81), 잡채(65), 송편(61) ...’으로 나타나 대표적 음식은 별 차이가 없으나, 일상적 음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다.

(37) - 무엇을 잡수시겠습니까?

-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한 정식과 영계 백숙이 있고, 갈비찜 백반도 있습니다.

- 그 중 간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 냉면, 비빔밥과 장국밥입니다.

(Intensive 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년대에도 역시 한국 음식 중 ‘김치’는 ‘맵지만 맛있어서 외국인이 먹어보고 싶어 하는 음식’으로, 그리고 ‘불고기’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정식, 냉면, 장국밥’ 등이 한국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잡채와 김치에 대해서는 간단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60년대 교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 설날과 추석, 대보름, 단오, 칠석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재에서 이들 명절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휘를 활용하여 명절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38) 설날, 추석, 단오, 떡, 떡국, 만두, 식혜, 설빔, 세배, 보름, 갓, 호두, 밤, 땅콩, 보름날, 불을 켜다, 계수, 달, 절, 소원, 풍습, 불놀이, 지방, 잣불, 그네, 하늘을 날다, 즐기다. 창경원, 단오, 씨름, 씨름판, 황소, 이기다, 까망다, 창포물, 음력, 칠석날, 전설, 옛날, 견우, 직녀, 하느님, 혼인, 결혼, 별, 칠월, 칠일, 오작교, 까마귀, 비, 눈물, 가엾다, 산소, 성묘, 차례, 추수, 햇곡식, 햇과일, 강강수월래, 달빛, 마을 처녀

그리고 60년대 교재에서는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상징물로서 ‘남대문’을 소개하고 있다.³¹⁾ 그러나 그 외의 문화적 상징물에 대한 소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단지 ‘온돌, 한복’과 같은 어휘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31) 《Beginning...》에서는 개성의 송도를 역사적인 문화적 상징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 교재가 미국에서 출간된 점을 감안하면, 당시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적 상징을 대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상세한 정보나 문화적 우수성을 기술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일상적인 문화 안에서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39) 정 부인: 안으로 들어오세요, 좀 더 따뜻한 곳으로요.

존슨 부인: 아 참 따뜻하군요, 겨울엔 온돌이 좋군요. (Intensive 2)

이러한 점은 최근 2000년대 교재에서 ‘한글(201), 태권도(182), 한복(173), 사물놀이(91), 온돌(88)…’ 등의 문화 어휘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보면, 한국의 유무형의 전통 문화가 1980년대 혹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문화 상징으로 사회적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교재에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³²⁾ 따라서 1960년대에는 지금과는 달리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한국의 상징물이나 관습 등을 제시함에 있어서 명절과 명절 풍습만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그 외의 문화적 상징은 다양화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4.4. 교재의 대화에 드러난 한국의 경제

1960년대의 한국의 경제는 앞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대화에 반영되어 있다.

(40) 김: 예, 전후에 실내 장식이 자꾸 발달되어 가죠.

32) ‘사물놀이’는 1980년대에 창단된 공연 단체를 지칭하였다가 4가지의 전통 타악기로 연주하는 공연을 일컫게 된 것으로, 언론과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한국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주재연 2010 참조). 그리고 ‘한글’은 1997년 10월에 ‘훈민정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그 우수성에 대한 가치를 더욱 주목받으며, 현재는 정책적으로 산업화와 관련한 연구와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태권도’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한국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같이 ‘한글’과 ‘태권도’, ‘온돌’ 등은 2006년 7월 29일 문화관광부가 공표한 한국인의 대표적인 문화상징에 포함되어 90년대 이후에 들어와 주목을 받으며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미스: 요새 경제적으로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 (Intensive 2)

(41) 정: 선생이야 아무 걱정이 없으시겠죠. 외국에 와 있다고는 하지만 ...

스미스: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한국민과 꼭 같이 경제적 사회적 곤란을 겪고 있죠. (Intensive 2)

(42) - 물건 값이 자꾸 오르는군요.

- 예, 큰일 났어요. (Myöngdo)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³³⁾ 또 당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지방에서 서울로의 상경이 많이 이루어져, 보통 고향에 부모님을 두고 서울로 올라온 성인 한국인 남성을 일반적인 한국인 남성으로 가정하고 이를 교재의 대화문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³⁴⁾

(43) - 처음 뵈겠어요. 최인수라고 합니다.

- 한용철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33) 미국에서 출간된 《Beginning...》은 한국으로 파견되는 선교사를 교육하기 위한 미국에서 출간된 교재였으며, 전후 재건을 위한 1950년대 외국 원조가 필요했던 시기에 집필되었던 교재였으므로 이를 교재에 반영하여 한국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이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임을 대화에 반영하고 있었다.

ㄱ. (한국에 가서) 한국 농촌에 가서 한국 부녀들과 일하려고 해... 나 같은 일꾼이 많은 미국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현재 일꾼이 부족한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이 더 뜻있는 것 같아서, 한국으로 가서 일하기로 결심했지... (한국에 가면) 나는 첫째로 탁아소나 유치원 같은 기관을 세울 테야. 부녀들이 밭과 논에 나가 일하는 동안 나는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고 싶어. 둘째로, 나는 농촌 부녀를 상대로 강습소를 하나 가질 생각이야. 그래서 부녀들에게 첫째, 육아법 둘째 가정 위생법, 셋째 간단한 양요리법, 양재봉 등을 가르칠 테야.

ㄴ. 옆집 홍식 엄마가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전당포에서 시계하나를 샀는데 꽤 좋더라고요. 요새 생활난으로 사람들이 귀중품을 많이 잡히더라고요.

34) 실제로 1962년 5월 1일자 《경향신문》 기획 기사 “超滿員大 서울 3百萬의 人口”라는 기사에 의하면, “... 서울은 국제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여 개조·건설·미화 등에 몸부림치고 있으나 도시집중으로 나날이 부풀어가는 인구문제를 비롯하여 ... 지금은 각 가정마다 <시골손님> 이 상경해있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상경 <붐>을 이루고 있다.” 등으로 서울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의 기사가 나타날 정도로 지방 인구의 도시 유입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 고향이 충청도 아니세요?

- 어떻게 아시지요?

- 김 선생님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Myöngdo)

(44) 오: 자넨 어떤가? 아직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나?

이: 아냐. 두 분 다 돌아가신 지가 한 사년 되었지. 늘 다시 서울로 올라 오셔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는 일이 시원하지 못했으니까 모실 수가 없었지. (Intensive 2)

지금까지 보는 바와 같이 60년대 한국어 교재에서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수해야 하며, 한국을 보여야 하는 교재의 특성 상 한국의 당시 경제적 상황을 지극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나, 피상적으로나마 경제가 어렵고 곤란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직업 목적으로 서울로 상경한 지방 출신의 남성들이 많았음을 교재에 드러내고 있었다.

4.5. 가족 관련 대화에 드러난 가족 문화와 유교적 사고

60년대 교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대화, 혹은 외국인 부부와 한국인 부부의 만남 속에서의 대화, 혹은 가족 간의 대화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가족 간의 친교를 위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속에 당시 한국의 가족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족 간의 대화는 부부간, 형제간, 친척 간의 대화 등 다양한 대화가 있었으며, 형제간의 대화의 경우에도 서너 명의 형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화문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보면, 당시 가족들 간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먼저, 부부간의 대화에서는 가정에서의 부부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화들이 있다.

(45) 존슨: 요사이 일도 매우 바쁘실텐데 ... 무어라고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수 부인: 아니요, 괜찮아요, 마침 질 주인은 요사이 휴가 중입니다. (Intensive 2)

(46) 스미스 부인: 행주는 저 설합 안에 있어요. 장은 아빠에게 좀 봐 오시라고

www.kci.go.kr

하지요.

장 씨: 미국 남자 어른들은 집안 일을 잘 도와 주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스미스 부인: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Intensive 2)

(47) 어머니: 그렇긴 하다면, 지금 같아선 이 다음에 나를 금으로 만든 방식에
얹혀 호강을 시켜 준대도 달갑지 않겠구나. 어디 지금같이 고데서야,
살맛이 나겠니? 어떤 땐 짜증만 나는구나.

외삼촌: 우리집 사람도 아마 그래서, 가끔 짜증을 내고 바가지를 굶나 봐요.
어머니: 그런 건 남자들이 다 이해해 줘야 하는 거야. 네 아내나, 나나 할
것 없이, 한국의 주부들은 고생을 타고 났는지, 모두들 고생을 하고
있지 않니?

외삼촌: 예, 그래요. 어떤 땐 보기에 참 안됐어요. (Intensive 2)

(48) 아버지: 그래,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온다는 것이, 그만 도중에서 친구를 만나
게 되어 늦었다.

어머니: 당신은 늦게 들어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변명이예요. 아이들이 본
받겠어요. 제발 일찍 좀 들어오셔서, 집안 일도 좀 돌보시고, 영철이
공부도 시키세요.

(45), (47)에서와 같이 아내는 남편을 ‘집주인’으로, 남편은 아내를 ‘집사
람’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46)에 보면, 미국 남자들과는 달리 한국의 남
자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으며, (48)에서와 같이 한국의 일반적인 아버
지는 집안일이나 아이들의 교육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47)에서와 같이 한국의 주부들은 모두 집안일로 고생이 많
으니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 봉양이
나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다.

(49) ㄱ. -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좀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방에 계십니다. 그럼, 안방으로 들어갑시다. (Intensive 1)

www.kci.go.kr

나. 오: 어떻게 자넨 효자야.

이: 이 사람이, 부모님을 변변히 모시지도 못했었는데, 그게 다 무슨 말이야.

김: 마음으로도 잘 모시는 것이 효자지 뭐가 효자란 말야.

이: 그만해 두게.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인 것 뿐야. (Intensive 2)

(50) 사장: 음, 내 특십 평생에 중매는 처음이네만, 그애는 마음씨가 착한데다가, 성격이 무난해. 여자가 고집이 세거나 하면 못 쓰거든. (Intensive 2)

(51) 김: 가정을 가지구 어떻게 오래 해외에 나가 살 수 있담.

김 부인: 그야 남편과 애들이 다 이해해 준다면야, 문제가 없죠. (Intensive 2)

(52) 김: 여보, 언젠가 빠리에 가 있는 동창생 얘기를 한 적이 있지?

김 부인: 예, 있어요. 왜 그러시죠?

김: 글썸, 좋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중매를 서 보구려.

김 부인: 아예 그만두슈. 이해심이나 많은 사람이면 몰라도, 누가 미술가를 아내로 맞아 들일까요? (Intensive 2)

위 (49ㄱ)에서와 같이 안방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든지, (49ㄴ)과 같이 부모봉양의 의무에 관한 대화라든지, (50)~(52)에서와 같이 고집이 세거나 고학력 여성의 경우 결혼 상대자로서는 비선호 조건이며, 남편 있는 여자가 혼자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 상황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60년대 교재를 통해 60년대에는 남편은 ‘집주인’으로서 바깥일에만 신경을 쓰고 아내는 ‘집사람’으로서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던 당시의 부부상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유교적 사상과 여성에 대한 봉건적 사상이 그대로 교재에 반영될 정도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교재 분석에 대한 함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외국인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도구가 되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각 시

www.kci.go.kr

기마다 한국어 교재에는 당시의 언어 현실과 사회 문화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명실상부한 시작 시점이라 할 수 있는 1960년대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이에 나타난 언어 현실과 사회 문화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핀 바에 따르면, 60년대 교재에 반영된 당시의 언어는 한국어 교재의 특성 상 일상적 어휘가 대부분이며, 지금과는 다른 당시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한 어휘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현재의 어휘 사용과는 다른 사용 양상을 보이는 어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어휘, 지금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빈도가 낮고 이를 대신하여 다른 유의어가 대체되어 사용되는 어휘, 언어 관계가 달라진 어휘, 다의적 쓰임이 달라진 어휘 등 다양한 의미 변화를 겪는 어휘들이 나타났다. 문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존대법이 실현된 문장과 문어에서 겸양의 어미 사용 등 존대법이 지금보다는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현상은 지극히 단편적인 사실이며, ‘교재’라는 다소는 보수적이고 편향적인 소량의 말뭉치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 60년대 언어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의 언어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뒷받침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60년대 어휘와 대화에는 당시 한국의 생활상과 한국에 대한 당시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어휘를 살핀 결과,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많은 어휘들이 나타나, 당시의 일상생활을 어휘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교재의 대화에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드러난 당시의 한국 문화와 이에 대한 인식을 살핀 결과, 60년대는 경제적으로 다소 어렵고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기는 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의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하여 한국 문화를 대표할 만한 문화를 많이 제시하고 있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한국어 교재를 통한 시대별 언어와 사회 문화에 대한 연구는 비단 60년대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도약기,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이후의 한국어 교재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재 속에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의 사회 문화를 비교 검토하여 시대에 따른 변화

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고에서는 60년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서의 한국의 사회 문화를 검토하였는데, 실제 60년대의 언어와 문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언어 현실과 언어 속에 나타난 사회와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60년대의 신문, 잡지, 소설, 교과서 등 다양한 장르의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60년대의 교재 중 공식적으로 발간된 종합적 회화 교재만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 현상과 사회 문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교재 중 국내에서 출간된 교재와 미국에서 출간된 교재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해외에서 비공식적으로 출간된 교재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 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 실제 60년대의 언어 속의 사회 문화의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현화(2004), <회화 교재의 주제 유형과 어휘: 한국어 교재와 외국어 교재의 비교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 39~6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_____(2012), <한국어 어휘교육 내용 개발 연구> 1, 국립국어원 보고서.
- 고경민(2012), <한국어 교재 변천사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 김영란(2009), <한국어교육 교재의 변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김혜영(2008),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화교육 내용 연구>, 한국의 국어대학교 석사논문.
- 민현식(2005), <한국어교육학 개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어교육론》 I, 13~27, 한국문화사.
-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 11~3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신현숙·이지영(2004), <한국어 교재의 어휘 범주 분석: 1960년대>, 《국어교육》 113, 433~466, 한국어교육학회.

이상철(2000), <20세기 제주도의 사회변동과 발전>, 《제주도연구》 18, 61~92, 제주
도연구회.

이성영(1992), <국어과 교재의 특성>, 《국어교육학 연구》 2(1), 71~92, 국어교육학회.

조항록(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어교육
론》 1, 29~70, 한국문화사.

주재연(2010), <사물놀이의 역사적 전개와 문화산업적 성과>,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홍석률(2002),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 역사》 62, 169~203,
한국사회사학회.

Anthony, V. Vandesande, & Francis, Y. T. Park. (1968). *Myōngdo's Korean* 68. Myōngdo
Institute.

Chang-Hai, Park. (1960).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1. Yonsei University.

_____ (1965).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2. Yonsei University.

Samuel, E. Martin, & Yong-Sook, C. Lee. (1969). *BEGINNING KOREAN*. Yale
University Press.

[한국어 교재]

《연세한국어》 1, 2007,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한국어》 2, 2007, 연세대학교 출판부.

[인터넷 자료]

경향신문(1962), <超滿員大 서울 3百萬의 人口>, 월드와이드웹: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2050100329203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2-05-01&officeId=00032&pageNo=3&printNo=5061&publishType=00020>

경향신문(1964), <화사한 인사: 벚꽃 활짝>, 월드와이드웹: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4041300329207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4-04-13&officeId=00032&pageNo=7&printNo=5684&publishType=00020>

한승화

hansh@yonsei.ac.kr

논문 접수일: 2월 17일

논문 심사일: 3월 1일~3월 31일

게재 확정일: 4월 13일

www.kci.go.kr